

2-2

박달스마트밸리 → 박달스마트시티 복합 문화도시 조성

사업구분			이행구분						이행률	완료시기
성격	기간	재원	완료		추진중		미착수			
			종료	지속추진	정상	부진	검토중	시기미도래		
계속	임기후	예산			○				45%	2033년 12월
중앙정부 도움 필요성			사업주체		추진부서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5300	
필요 (제도/재정/권한)			자체			균형발전팀장		정영훈	☎5301	
					주무관		김은영	☎5451		

□ 최종목표

-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 중앙정부와 원활한 협의를 통한 조속한 합의각서 체결
- 양여부지에 IC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로 계획·조성
-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한 행정절차 이행 단축 및 조기 착공

□ 연차별 목표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6월
박달스마트시티 조성	-	사업 추진 관련 협의	합의각서 체결	대체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 확인지표

- 합의각서 체결(안양시·국방시설본부)
- 대체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
- 탄약고 이전 사업 착수

□ 사업개요

- 사업명: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
- 위치: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원
- 면적: 328만㎡(기부부지 : 114만㎡, 양여부지 : 214만㎡)
- 개발컨셉: 4차 산업혁명 중심의 친환경 첨단산업·문화주거 복합단지 조성
- 사업기간: 2019년~2033년
- 사업방식: 기부 대 양여 사업
 - ▶ 군사시설 현대화: 기부 대 양여 사업 방식
 - ▶ 스마트시티 개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연차별 · 분기별 로드맵

세부 추진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임기후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합의각서 체결																	
대체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탄약고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 추진실적

- 2018. 10. 4.: 탄약시설 지하화 이전 협의 요청 및 건의서 제출(안양시→ 국방부)
- 2018. 10. 4.~2019. 7. 9.: 국방부 협의 8회
- 2018. 11. 15.~2019. 2. 22.: 관계전문가 자문 5회
- 2018. 11. 28.~2019. 1. 10.: 박달스마트벨리 지원위원회 자문 2회
- 2018. 12. 14.: 안양시·국방부 협의체 구성
- 2019. 3. 5.: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벨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2019. 6. 13.: 국방부(육군 포함)·안양시 공동협의체 회의(제1차)
- 2019. 6. 20.: 경기도(안양시)·지상작전사령부 정책협의회
- 2019. 6. 24.: 국방부 보완 용역 계약(육군사관학교 산학협력단)
- 2019. 7.: 국방부(7. 9.), 육군본부(7. 10.), 사령부(7. 11.) 등과 보완협의
- 2019. 9. 23.: 국방부(육군 포함)·안양시 공동협의체 회의(제2차)
- 2020. 1. 15.: 탄약시설 이전 제안서 보완자료 제출(안양시→국방부)
- 2020. 2. : 국방부, 육군본부, 제1군수지원사령부 업무 협의
- 2020. 3. 30.: 탄약시설 이전 제안서 보완자료 추가제출(안양시→국방부)
- 2020. 5. 28.: 박달스마트벨리 조성 추진 TF 구성(경기도)
- 2020. 6. 5.: 박달스마트벨리 조성 추진 TF 1차 회의
- 2020. 6. 15.: 기부 대 양여 이전협의 진행 통보(국방부→안양시)
- 2020. 6. 23.: 박달스마트벨리 조성사업 보고회 개최
- 2020. 7. 3.: 박달스마트벨리 조성 추진 TF 2차 회의
- 2020. 8. 10.: 「안양○○탄약시설 이전 합의각서 체결 및 양여부지 개발 전략수립 용역」 착수
- 2020. 9. 25.: 박달스마트벨리 조성 추진 TF 3차 회의
- 2020. 10. 5.: 시설기본요구조건 통보(육군본부→안양시)
- 2020. 10.~11.: 국방시설본부, 육군본부, 1군수지원사령부 등 업무 협의
- 2021. 1. 21.: 국방시설본부 실무협조회의(1차)
- 2021. 2. 8.: 박달스마트벨리 토지이용계획(안) 자문회의

- 2021. 2. 16.: 국방시설본부 실무협조회의(2차)
- 2021. 2. 26.: 합의각서(안)제출(안양시→국방시설본부)
- 2021. 3. 5.: 합의각서(안) 1차 보완 요청(국방시설본부→안양시)
- 2021. 3. 19.: 합의각서(안) 1차 보완 제출(안양시→국방시설본부)
- 2021. 4. 7.: 합의각서(안) 2차 보완 요청(국방시설본부→안양시)
- 2021. 4. 12.: 합의각서(안) 2차 보완 제출(안양시→국방시설본부)
- 2021. 4. 16.: 최초합의각서(안) 승인 건의(국방시설본부→국방부)
- 2021. 6. 1.: GB관리계획 변경 및 해제 관련 국토부 사전 협의
- 2021. 8. 9.: 기부 대 양여사업 승인 건의(국방부→기획재정부)
- 2021. 11.~2022. 3.: 합의각서(안)타당성 검토 용역(기획재정부→국토연구원)
- 2022. 1. 10.: GB해제 관련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 2022. 8. 16.: GB관리계획 변경(안) 관련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 2022. 11. 8.: GB해제총량 지원 요청 관련 경기도 협의
- 2022. 12. 27.: GB해제총량지원 요청(안양시→경기도)
- 2023. 1. 31.: 민간참여자 공모 공고(안양도시공사)
- 2023. 5. 12.: 사업참여계획서 접수(1개 컨소시엄 접수)
- 2023. 5. 17.: 민간참여자 공모 재공고(안양도시공사)
- 2023. 6. 16.: 「박달스마트밸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및 해제를 위한 기술지원용역」 착수
- 2023. 7. 18.: GB해제 관련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 2023. 8. 29.: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삼성증권 컨소시엄)
- 2023. 9. 15.: GB관리계획 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
- 2023. 10. 23.: 국유재산 정책심의 관련 기획재정부 협의
- 2023. 11. 23.: GB관리계획 국토교통부 사전심사반 자문회의
- 2023. 12. 21.: 사업 협약 승인 신청(안양도시공사→안양시)
- 2024. 2. 2.: 2026년 수도권 GB관리계획 1차 변경 신청(안양시→경기도)
- 2024. 3. 13.: 사업 협약 승인(안양시→안양도시공사)
- 2024. 3. 14.: 안양도시공사 · 민간참여자 사업 협약
- 2024. 3. 18.: 사업 협약 국토교통부 보고(안양시→국토교통부)
- 2024. 4. 16.: GB관리계획변경(안) 관련 경기도 현장점검
- 2024. 5. 10.: GB관리계획변경 입지대상시설 경기도 자체심사 완료
- 2024. 5. 30.: GB관리계획변경 입지대상시설 경기도 자체심사 조치계획 제출
- 2024. 6. 28.: 특수목적법인(PFV) 설립
- 2024. 8. 13.: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 2024. 8. 26.: GB관리계획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

- 2024. 9. 25.: GB관리계획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
- 2024. 10. 30.: GB관리계획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1차 실무 협의
- 2024. 11. 13.: GB관리계획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2차 실무 협의
- 2024. 11. 26.: GB관리계획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3차 실무 협의
- 2024. 12. 27.: GB관리계획변경(안) 설명자료 보완 제출(市→道→국토교통부)
- 2025. 2. 4.: GB관리계획변경 입지대상시설 사전심사 완료
- 2025. 8. 12.: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
- 2025. 8. 26.: 최초 합의각서(안) 승인 알림(국방시설본부→안양시)
- 2025. 9. 24.: 최초 합의각서 체결(안양시↔국방시설본부)
- 2025. 10. 24.: 사업시행자 지정(국방부→안양시)
- 2025. 10. 30.: 대체시설 기본실시설계를 위한 비밀취급인가 신청(안양시 50탄약대대)





□ 자체 점검결과

【잘된 점】

- 국방부에 공식 군사시설 이전 협의요청 및 건의서(제안서) 제출(2018. 10. 4.)
- 국방부와의 협의체 구성(2018. 12. 14.) 및 회의 개최(2회)
- 경기도·지상작전사령부 정책협의회 안건 채택 및 회의 개최(2019. 6. 20.)
- 지하형 스마트 탄약고 구축 세미나를 통한 공감대 형성(2019. 9. 20.)
- 국방부 등 관련기관 다수 협의로 국방부로부터 기부 대 양여 이전협의 진행 통보(2020. 6. 15.)
- 기부 대 양여 이전협의 진행 통보에 따른 주민보고회 개최(2020. 6. 23.)
- 합의각서(안) 제출(2021. 2. 26.)
- 합의각서(안) 관련 신속한 협의 및 보완으로 국방부에 승인 건의(2021. 4. 16.)
- 국방부 보완요청에 대한 신속한 자료 제출로 국방부에서 기획재정부로 합의각서(안) 승인 건의(2021. 8. 9.)
-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벨리 조성사업 민간참여자 공모 공고(2023. 1. 31.)
-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벨리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023. 8. 29.)
-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벨리 조성사업 사업 협약(2024. 3. 14.)
-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PFV) 설립(2024. 6. 28.)
- 특수목적법인(PFV)의 자산관리회사(AMC) 서안양친환경융합스마트벨리에이엠씨(주) 설립(2024. 8. 13.)
- 합의각서 체결을 위한 국토부 GB관리계획 입지대상시설 사전심사 완료(2025. 2. 4.)
- 합의각서 체결을 위한 기재부 국유재산정책심의 통과(2025. 8. 12.)
- 최초 합의각서 체결(안양시↔국방시설본부) (2025. 9. 24.)
- 사업시행자 지정 통보(국방부→안양시) (2025. 10. 24.)
- 주민설명회 개최(2025. 12.): 만안구 8개동(호현동, 박달동 등)

□ 연차별 투자계획 및 집행

【투자계획 및 확보실적】

(단위:백만원)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6월		임기후
	계획	확보	계획	확보	계획	확보	계획	확보	계획	확보	계획	확보	
계	3,028,050	150	-	-	150	150	-	-	-	-	-	-	3,027,900
시 비	150	150	-	-	150	150	-	-	-	-	-	-	-
기 타	3,027,900		-	-	-	-	-	-	-	-	-	-	3,027,900

【집행실적】

(단위:백만원)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6
계	86	-	62	-	24	-
시 비	86	-	62	-	24	-

※ 2023년 용역비 150백만원의 사고이월로, 2025. 12월 타절준공에 따른 잔액 집행

□ 시민소통 실적 및 계획

○ 시민소통 실적

(단위:회)

설명회, 공청회 등	만족도 조사	민간전문가 자문	언론·방송 보도	SNS 소통	기타 시민참여
1		20	484		

- ▶ 박달스마트벨리 지원위원회 자문 14회 및 美 부동산투자자 자문 1회
- ▶ 관계전문가 자문 5회



2018. 8. 30. 지원위원회 자문



2018. 11. 15. 美 부동산투자자 자문



2018. 11. 28. 지원위원회 자문

- ▶ 사업지 인근 주민 대상 보고회 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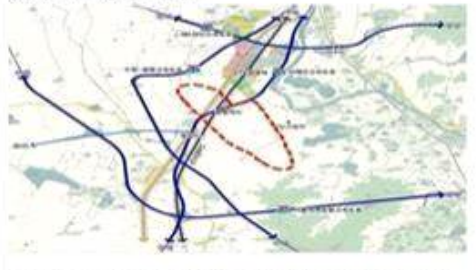
2020. 6. 23. 주민보고회(민안구청)

- ▶ 언론·방송 보도 및 보도자료 제공: 484회(2018년 3분기 이후)

최대호의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경제학' ..생산액 6조 2천억 고품 4만3천명

최대호 안양시장이 시인양 양화동 일대 스마트밸리(박달스마트밸리)조성을 위한 군사시설 지원용 이전사업을 국방부에 정식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최 시장은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생산액발표회(박달스마트밸리)를 4월 20일 오후 2시에 개최했다.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생산액발표회(박달스마트밸리)를 4월 20일 오후 2시에 개최했다.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생산액발표회(박달스마트밸리)를 4월 20일 오후 2시에 개최했다.



최 시장은 KTX 광명역, 사해안 일대 광명-수원고속도로, 발원-연고 간철도 등 광역 교통망의 육지적 개발을 실현해 산업에 참여해 있는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현대화해 지역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해당사업 구역엔 박달동 일대엔 KTX 광명역, 사해안 일대 광명-수원고속도로, 발원-연고 간철도 등 광역 교통망이 자리잡고 있다.

최 시장은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민간과 기업이 신도시인 발원동과 광명동을 이루고 안양이 미래로 나아가길 수 있는 대도시 모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美 부동산투자자, 안양 박달스마트밸리에 관심

안양시, 워트코프 회장 '경제고문'으로 위촉

안양시 방문한 워트코프 회장(안양시 제공)

대통령인주업 이종걸(안양시) 회장이 초청으로 15일 안양시를 방문한 워트코프 회장은 배수용 부시장으로부터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교통, 접근성, 주변 환경 등 개발 가능성이 매우 뛰어난 곳이라고 밝혔다.

워트코프 회장은 박달스마트밸리 예정지는 공학, 항만, 고속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라며 경제자문과 함께 안양을 다시 방문해 의견을 나누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참석자가 전했다.

시는 워트코프 회장을 경제고문으로 위촉했다.



박달스마트밸리는 박달동 일대 342만㎡에 첨단 산업과 주거단지가 어우러진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안양시 역점 사업이다.

워트코프 회장은 2월 3일간의 방문 일정을 마치고 16일 귀국했다.

서울신문

경기도-안양시-지상작전사령부, 박달동 탄약부대 지하화 정책협의회 개최



▲ 이종걸(안양시) 회장이 세 번째 경기도지사, 최대호(안양시) 시장, 남영선 지상작전사령관(육군대령) 등 3개 기관장과 관계자들이 박달동 군부대 탄약고 지하화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와 안양시, 지상작전사령부 등 3개 기관 지난 20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만난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걸 경기도지사, 최대호 안양시장, 남영선 지상작전사령관(육군대령) 등 3개 기관장과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정부은 경기도 공익민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용 지상작전사령부 수도연습장도구가 지하는 박달동 일대 탄약고(상)를 지하화하고, 180만㎡ 부지에 4차역점 복합산업단지(상)를 조성하는 데 합의했다.

시는 앞서 지난 14일에도 국방부 관계관과 첫 만남을 갖고 의견을 교환했다. 탄약지정시설인 50만㎡에 지하화는 시공 노후화로 인공 폭우가 필요한 상황이며서 국방부의 육군도 이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다. 더불어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중앙과 지방 정부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남 시장은 "탄약지정시설을 지하화하면 지진과 관련이 높고, 안전성이 확보돼 전시상황을 할당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새 군·민이 공생하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지상탄약지정시설은 사용인력(상)과 인공지능 및 자동화된 물류시스템이 접목된 스마트탄약지정 및 관리가 부합이 돼 국내 지하탄약지정시설의 모델로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영선 기자 sarigin@seoul.co.kr

안양 박달동 군부대 탄약고 지하화 관련 국방부 긍정적 의견 시사

남영선 기자 | 2020.06.24 09:31



안양시와 경기도, 지상작전사령부 등 3개 기관이 참여한 정책협의회를 21일 안양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용 지상작전사령부 수도연습장도구가 지하는 박달동 일대 탄약고(상)를 지하화하고, 180만㎡ 부지에 4차역점 복합산업단지(상)를 조성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걸 경기도지사, 최대호 안양시장, 남영선 지상작전사령관(육군대령) 등 3개 기관장과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정부은 경기도 공익민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용 지상작전사령부 수도연습장도구가 지하는 박달동 일대 탄약고(상)를 지하화하고, 180만㎡ 부지에 4차역점 복합산업단지(상)를 조성하는 데 합의했다.

시는 앞서 지난 14일에도 국방부 관계관과 첫 만남을 갖고 의견을 교환했다. 탄약지정시설인 50만㎡에 지하화는 시공 노후화로 인공 폭우가 필요한 상황이며서 국방부의 육군도 이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다. 더불어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중앙과 지방 정부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남 시장은 "탄약지정시설을 지하화하면 지진과 관련이 높고, 안전성이 확보돼 전시상황을 할당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새 군·민이 공생하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지상탄약지정시설은 사용인력(상)과 인공지능 및 자동화된 물류시스템이 접목된 스마트탄약지정 및 관리가 부합이 돼 국내 지하탄약지정시설의 모델로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영선 기자 sarigin@seoul.co.kr

서울 Pn

1조 3000억원 안양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사업' 마침내 첫발

남영선 기자 sarigin@seoul.co.kr | 2020.06.24 09:34



안양시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생산액발표회(박달스마트밸리)를 4월 20일 오후 2시에 개최했다.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생산액발표회(박달스마트밸리)를 4월 20일 오후 2시에 개최했다.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생산액발표회(박달스마트밸리)를 4월 20일 오후 2시에 개최했다.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 310만㎡ 부지에 친환경 미래산업 육성 거점을 조성하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이 추진 6년만에 마침내 첫발을 내디뎠다. 시는 박달동 탄약시설 지하화 사업과 관련 국방부의 본격적인 협의를 조만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더디기만 했던 사업은 최근 국방부로부터 이전 협의에 나서겠다는 통보를 받은으로 탄약을 받게 됐다. 하지만 첫발을 내디뎠을 뿐 시에서 추진하는 단일 사업이 아닌 국책사업으로 갈 길이 아직 멀다.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과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도 공약이기도 한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군관협력담당관, 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등 4개 부서로 구성된 특별팀을 꾸려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

[인터뷰] 최대호 시장 "박달스마트밸리로 안양 고도화"

파이낸셜뉴스 기자 | 2020.06.25 19:25 | 2020.06.25 19:25



최대호 안양시장, 사진제공=안양시

[안양=파이낸셜뉴스 김근주 기자] "인선5기 시정을 책임지고 민선6기에 나선한 뒤 민선7기를 다시 하면서 결국 명예를 퇴직했다. 자신있게 시민을 위해 박달스마트밸리 조성하고 수도권광역경제벨트(GTX-C노선) 인덕원역 정차는 민선7기 운영을 결코 반드시 해결할 생각이다. 박달스마트밸리는 구도심 민간에 상전벽해를 안겨 주고, GTX-C 인덕원역 정차는 과학, 의상, 군포 등 인근 도시에게도 상당한 경제유발효과를 안겨줄 것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 숙원사업 해결에 유독 열정이 크다. 시민은 바다와 갈아 배를 띄우기도 하고 난파시키기도 한다는 사실을 절감해서다. 4년간 와신상담 끝에 군포중대한 뒤 시민 소통에 날다른 행보를 보인 까닭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는 "민선5기 경험이 공무원 세계를 이해하고 책임행정 투명행정을 추진하는 밑거름이 됐다"며 공무원 용인술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사실 그는 "혁신 재벌로 명성을 날릴 때 검사 용병술 달인이라 애칭을 얻기도 했다.

국방부-안양시 합의각서 체결

입력 2025.09.24. 오후 12:00 수정 2025.09.24. 오후 12:00



(서울=연합뉴스) 24일 경기 안양시 안양시청에서 열린 안양시-국방시설본부 합의각서 체결식에서 위정대 국방시설본부 사업 관리 부장(왼쪽)과 최대호 안양시장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5.9.24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사진부공용(photo@yna.co.kr)

국방부-안양시, 50탄약대대 이전 사업 계획 합의각서 체결

시에서 대체 시설 기부하면 국방부가 부지 양여



합의각서 체결 모습.(국방부 제공)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부와 안양시가 24일 경기 안양시 안양시청에서 만안구 박달동 일대 군부대 탄약시설 지하화를 골자로 하는 '50탄약대대 이전 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50탄약대대 이전 사업계획 및 최초 합의각서'가 원안 의결됨에 따라 마련됐다.

50탄약대대 이전사업은 안양시가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안양시가 대체시설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종전부지를 시에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합의각서엔 △50탄약대대 이전사업의 기본방질 △기부 양여재산 내역 및 평가 시기 △사업관리 등 50탄약대대 이전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포함된다.

국방부는 합의각서를 체결한 후 안양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양시, 국방부로부터 박달스마트시티 사업 지정 '실행단계 본격 진입'

■ / 기사승인 : 2025-10-28 16:59:14

내년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027년 착공 목표



(사진=안양시청)

심승환 기자

tmdnjs000614@sedaily.com

[서울경제TV 광안-심승환 기자] 안양시는 국방부로부터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사업 시행자로 지정돼 사업 추진의 실질적 기반이 마련됐다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추진 주체가 공식 확정되면서, 안양시는 계획단계를 넘어 군사시설 이전과 도시개발을 병행할 수 있는 실행 단계에 본격 진입하게 됐다.

내년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에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양여 부지 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국토교통부·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에도 병행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tmdnjs000614@sedaily.com

(주) 서울경제TVwww.seri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양시, '박달스마트시티' 사업시행자 지정

입력 2025.10.28. 오후 4:06 수정 2025.10.28. 오후 4:08

경기 안양시가 만안구 박달동 일대 군부대 탄약시설의 지하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안양50탄약대대 이전사업) 시행자로 지정됐습니다.

안양시는 국방부와 이전사업 최초 합의각서를 체결한 지 한 달 만인 지난 24일 국방부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안양시가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안양시는 대체시설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종전 부지를 안양시에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안양시가 대체시설로 건설하는 탄약고는 지하형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해 탄약을 안정적으로 저장·관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탄약 수명을 늘리고 작전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인근 주거지역의 안전거리를 확보해 주민 재산권과 생활권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와 안양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국방시설본부 및 민간 컨소시엄과 협력해 탄약시설 현대화 및 이전을 위한 설계·착공 등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을 계기로 안양시의 미래 100년을 여는 박달스마트시티가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게 됐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안양시 제공]

※ 최근 2025. 10. 24. 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른 언론·방송 보도 135건

○ 시민소통 계획

- ▶ 사업 추진 중 주요 진행사항에 대한 언론·방송보도 자료 제공
- ▶ GB해제 등 관계기관(국토부, 경기도) 협의에 따른 사업계획 확정 시 추가 사업설명회 개최

□ 향후 추진계획

- 2026. 1.: 대체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예정
- 2026. 2.: GB해제 및 개발계획(안) 관련 경기도 사전협의